

물(水)

실천이!!

쉽고 또 쉬워야 한다!! 공기처럼
먼저 인체가 원하는!! 건강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문운석의

온골(溫骨)시스템

누구나 잠자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24시간
뼈를 따뜻하게 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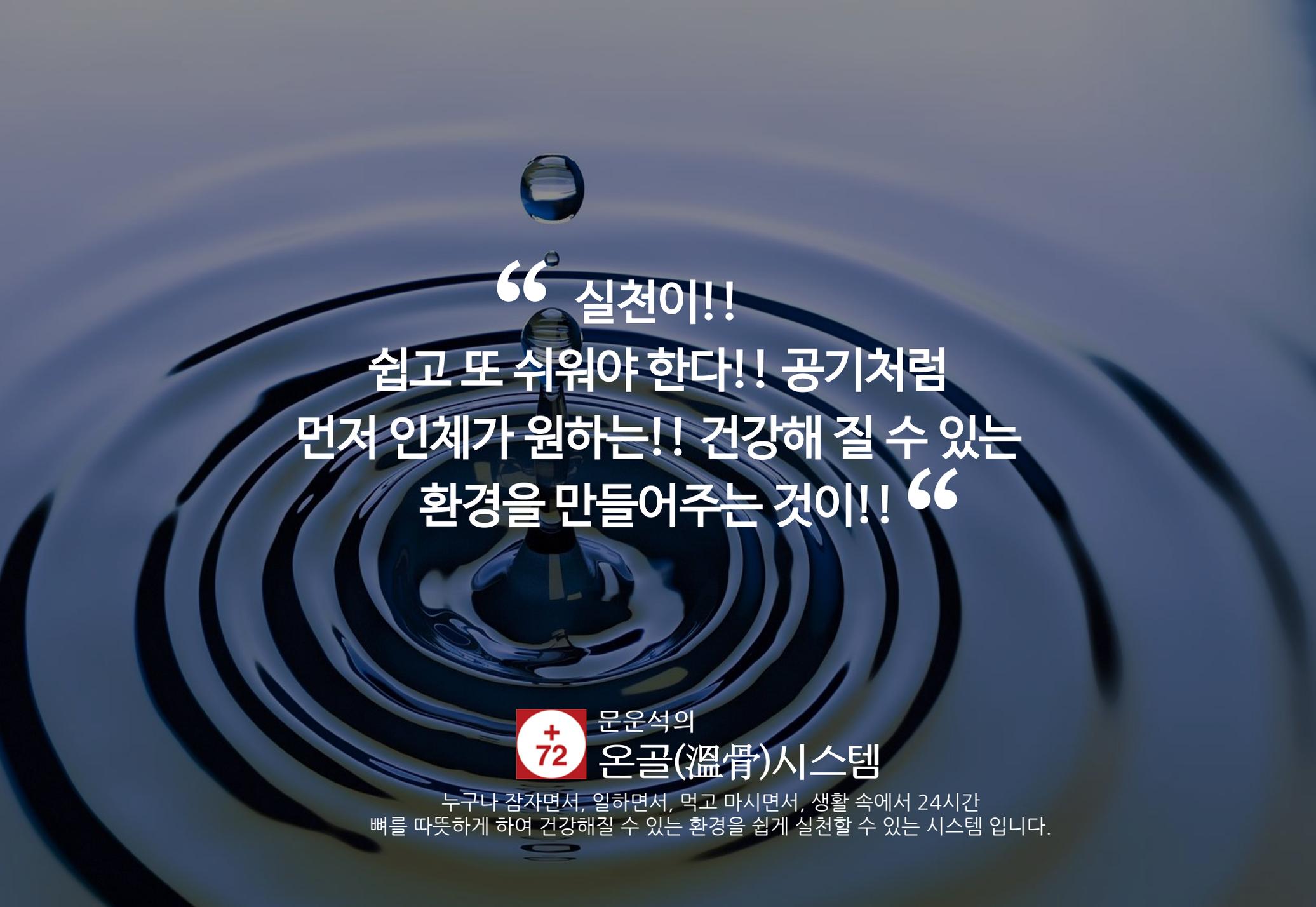
2. 물(水)

기후, 풍토, 인종을 초월하여 전세계 누구나 공통적으로 접하는 공통점인 물(水)을
상식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었나?

- (1) 생명에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게 물이라는 것
- (2) 전인류가 한 순간도 피할 수 없이 접해야 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
- (3) 일주일 이상을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물
- (4) “생명수” - “생명” 이란 수식어를 물에만 쓰는게 물이라는 것
- (5) 생명이 탄생한 곳이 소금물이라는 것 - 양수(羊水)
- (6) 양수(羊水) - 혈액 - 링거의 공통점이 소금물이고 염도가 0.9%라는 것
- (7)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공기는 공짜고 생활 속에서 쉽게 취하는 반면 물은 움직여야 취할 수 있고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

- (8) 밥이 “보약” 이란 말이 있다 굶지 말라는 말은 누구나 안다.
전세계 누구나 밥을 먹을때 피할 수 없는 것이 물과 소금인데 잘못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는 말로 풀이된다.
그 어느 것보다 먹는것 중에 가장 몸에 좋은 보약이 물이라는 것, 아무리 좋은것 이라도
물 다음 이라는 것이다.
- (9) 그러나 아플때 생명에 두번째로 중요한 것임에도 말하는 이마다 다 다르고
그때 그때 기준이 다르고 애매모호 하다는 것, 인체는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 (10) 혈기(血氣)가 좋다 라는 말을 자주 쓰면서도 거의 혈액이나 물을 과학적으로, 기(氣)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는 다는 것 (혈기(血氣))
- (11) 평상시 접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물이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의 피와 거의 정반대의 성질을 띄고
있다는 것 - ①가장 따뜻하고 ②짜고 ③항산화 수치가 좋고 ④혈기(血氣:energy)가 좋은 것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되겠는가?
- (12) 지구가 생긴 이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공기는 공기청정기만 개발됐지만 좋다는 물은
그보다 수가 많은 10-15개 정도에서 개발될 정도이다.
- (13) 끓인 물은 미네랄이 죽은 물이라 하는데 전세계 누구나 거의 대부분 아플 때나, 추위를 탈 때나
병세가 깊을 때면 그 좋은 물들을 뒤로하고 미네랄이 죽었다는 끓인 물을 찾는다는 것
(따뜻한 물-끓인 물이 식은게 따뜻한 물)

- (14) 공기 다음으로 생명에 두번째 중요한 것임에도 대부분 장사꾼이나 비전문가들이 다루는게 현실이라는 것
- (15) 공기와 수맥이 무형이라는 것과는 달리 소금과 함께 유형이라는 것
- (16)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공기보다 설명에 좀 쉽고 할 말이 많다는 것 - 두번째로 중요한 것인데도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는게 반대로 많다는 것
- (17)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인지 개발된 제품을 설명하고자 해서인지 대부분 좋은 물들의 공통점이 시원하고 차다는 것이다. - 인체는 그대로이고, 36.5℃이고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점점 차가워져 가는데도... 이치에 맞는가?
- (18)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의 피의 공통점
①가장 따뜻하고 ②짜고 ③항산화 수치가 좋고 ④혈기(血氣:energy)가 좋다
※ 온몸의 심장의 피와 같은 상태가 되면 건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 심장을 떠나는 순간 바뀌는 것이다. (온도부터)
- (19) 병원에 가면 가장 위독한 환자일수록 중환자실로 갈수록 산소마스크 다음으로 링거(소금물)라는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물의 중요성을 깨우칠 것이다.
- (20) 물을 예민하게 느끼는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① 평상시 실온의 물을 조금만 급하게 마셔도 자주 체하여 불편해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② 추운 겨울 냉커피를 마시면서 역시 커피는 냉커피야 하면서 짜릿함을 느끼며 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다.



“ 실천이!!
쉽고 또 쉬워야 한다!! 공기처럼
먼저 인체가 원하는!! 건강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



문운석의

온골(溫骨)시스템

누구나 잠자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24시간
뼈를 따뜻하게 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21) 평상시 실온의 물을 마시고도 자주 체하거나 차가운 물을 불편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하고 발이 차게 태어난 사람일수록 - 노약자일수록 - 병세가 깊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타난다.

(22) 추운 겨울 냉커피를 마시고도 멀쩡하고 시원한 물을 즐겨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나 추위에 강할수록 - 젊을수록 -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나타난다.

(23) 평상시 누가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나?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발이 차게 태어나 추위에 약할수록 - 노약자일수록 - 병세가 깊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24) 평상시 누가 자연스럽게 물을 많이 마시나?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나 추위에 강할수록 - 젊을수록 -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

(25) 어디든 아파서 병원이나 한의원 약을 먹을때 하는 말을 평상시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뜻하게 해서 마시라고 하거나 따뜻한 물과 함께 마시라는 말...

(27)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점점 몸에 수분(물)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탈수)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진다.

(28) 누가 몸의 수분량(물)이 적고 근육이 적은가?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발이 차게 태어나 추위에 약할수록 - 노약자일수록 - 병세가 깊을수록
- 잘 지치는 사람들 일수록 나타난다.

(29) 누가 몸의 수분(물)량이 많고 근육이 많은가?

공통점은 -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나 추위에 강할수록 - 젊을수록 -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

(30) 일일 마셔야 하는 물의 정량이 있는가?

- 물은 체온에 따라 마시는 양이 달라진다.

- 근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아니 뼈를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물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31)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과 많이 마시는 사람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하루 종일 한 컵도 안 마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주만(2홉) 7-8병을 마시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인데 피부로 와 닿지 않을 뿐이다.

(26)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많이 마셨다가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

왜? 그럴까? 물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시고 몸이 따뜻한 사람들 일수록 많이 마신다.

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따뜻해서 소화력이 좋은 것이다.

소화기가 찬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셔도 빨리 차가워진다 - 소화기가 차기 때문이다.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면 저절로 물은 많이 마시게 된다.

“ 실천이!!
쉽고 또 쉬워야 한다!! 공기처럼
먼저 인체가 원하는!! 건강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



문운석의

온골(溫骨)시스템

누구나 잠자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24시간
뼈를 따뜻하게 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 (32)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몸의 모든 구성요소들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몸의 수분이 부족해서...
- (33) 생로병사(生老病死)는 몸이 차가워지면서 교감, 부교감,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져간다.
몸에 물이 부족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나타난다.
- (34) 체온이 낮을수록 - 노화가 심할수록 - 병세가 깊을수록 - 인체의 수분(물)량이 적어진다.
- (35) 평상시 접하는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 등을 많이 마실수록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의 경화가 빨라진다.
- (36) 선천적으로 발이 차게 태어나 추위를 심하게 탈수록 - 지칠수록 - 몸에 물이 부족하면
나이보다 빠르게 뼈가 약해진다.
- (37) 심장의 피의 조건을 최대한 갖춘 물을 마셔라!!
①가장 따뜻하고 ②짜고 ③항산화 수치가 좋고 ④혈기(血氣:energy)가 좋은
- (38) 인체가 소우주(小宇宙)이고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심장의 피라는 것을 알고 생명이 탄생한 곳(羊水)
소금물이라는 것을 되새길 때 건강의 지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39) 끝으로 뼈가 따뜻한 사람들일수록 활력이 넘치고 인체내 산소(공기), 수분(물), 염분(소금)량이
좋으면서 모든 환경(수맥)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24시간 소리 없이 쉬 없이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것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생명에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점점 몸이 차가워지면서 산소(空氣)가 부족해지고 - 수분(水)이 부족해지고
- 염분(鹽)이 부족해지고 - 뼈속(骨)이 차가워지면서 환경(水脈)에 약해지는 것이다.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점점 인체내 공기(산소)가 부족해지고
평상시 접하는 공기가 심장의 피와 거의 정반대쪽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장 따뜻하고 - 짜고 - 항산화 수치가 좋고 - 혈기(血氣)가 좋은 것과는 반대로...



문운석의

온골(溫骨)시스템

누구나 잠자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24시간
뼈를 따뜻하게 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문운석의

온골(溫骨)시스템

누구나 잠자면서, 일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24시간
뼈를 따뜻하게 하여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